

# 광주·전남서 방 빼는 은행...9년새 점포 69곳 없었다

지난해 756개...전년비 13개 줄어  
주로 시중은행이 크게 줄어

제2금융권은 변동폭 크지 않아

KB국민은행 내달 목표지점 폐쇄

원도심 주민·상인회 등 강력 반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들이 지난 9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69곳에 달하는 점포를 없앴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는 45년 역사를 지닌 KB국민은행 목표지점인 문 단으며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의 금융 소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 은행 점포 수는 756개로, 전년(769개)보다 13개 줄었다.

9년 전인 2011년 825개에 비해서는 무려 69개(광주 45개·전남 24개)가 사라졌다.

광주·전남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827개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781개(광주 311개·전남 470개)로 800곳으로 주저 않더니 올

해 점포 수는 75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최근 9년 동안 점포를 줄인 금융기관은 주로 시중은행이었다.

광주 시중은행 점포는 171개에서 133개로 38개 감소했고, 전남은 104개에서 93개로 11개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에서 새마을금고 점포가 9개(광주 7개·전남 2개) 줄어들었고, 상호금융(-6개), 신한(-3개), 상호저축은행(-1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13년부터 올해(9월 말)까지 광주지역 점포 현황을 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점포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KB국민은행이었다.

지난 2013년 27개이던 국민은행 점포는 올해 9월 말 기준 13개로 감소했다.

우리은행(13개→10개), 농협은행(29개→27개), 신한은행(12개→11개) 등도 점포를 줄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되기 이전인 지난 2013년 두 은행의 점포는 13개였는데 올해는 10개로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동광주·여천남·송정·광양제철·순천 등 광주·전남에서 5개 점포를 감축하고, 연초 2개 점포를 없앴다.

다음달 3일 광주남구청 점포가 문을 닫고 같은 달 21일에는 목포지점이 폐쇄된다.

## ■ 광주 주요 은행 점포 추이

※( )안은 출장소·9월 말 기준

	2013년	2021년	증감
국민	27(2)	13(5)	△14
신한	12(3)	11(1)	△1
우리	13(1)	10(1)	△3
하나	13(2)	10	△3
농협	29(3)	27(2)	△2
광주	78(17)	71(5)	△7

(자료: 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 목포지점(영산로 101)은 지난 1977년 1월1일 문을 연 뒤 목포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중심 금융기관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원이)와 조국현 전남도의원, 목포 원도심 주민대표, 상인회 대표는 이달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은행 측에 목표지점 점포 폐쇄 결정에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은행 측은 점포폐쇄 결정을 유지하면서 자동화기기(ATM) 보다 고객 편의를 높인 STM 기기를 4대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안내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달 동안 이동형 점포(버스)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신홍수(58) 목포 원도심 상인회장은 "국민은행

이용객의 경우 점포가 없는 신안에서도 목표지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는 점포 폐쇄를 강행하기 보다는 출장소 설치라도 고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일환 KB국민은행 채널지원부 부장은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ATM시스템 보다 훨씬 편리한 STM 시스템을 18평 규모(60㎡)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도입할 예정"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하남산단지점을 상무금융센터로 통폐합했다.

신한은행 동광주점은 지난 6월25일 금남로 광주점으로 통합됐다. 두암동지점은 은행원 없는 무인형 점포 '디지털 라운지'가 문을 열었다. 당장 연초부터 남약점은 목포하남금융센터점(1월17일)으로, 여수점은 여수시청로점(1월17일)으로, 광주금호점은 상무점(1월24일)으로 흡수된다.

우리은행도 연말 동광양지점과 광양제철 출장소가 광양포스코금융센터로 통폐합됐다.

한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지난 7월27일부터 광주·전남 시중은행과 2금융권도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운영에 일괄 돌입하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치동 오정지역아동센터 광주은행 67번째 '공부방'

광주은행이 북구 오치동 오정지역아동센터를 67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하며 새 단장했다.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30일 오정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오영인 센터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기념물을 전달했다.

이 센터에서는 29명 청소년들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학습 지도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은 오정지역아동센터의 노후된 겨울철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했다. 새 책상과 의자를 마련해주고, 무더위에 대비한 에어컨도 설치해줬다.

이우경 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2,977로 증시 폐장

울 3.63%·코스닥 6.77% 상승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며 2970선에서 한해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5.64포인트(0.52%) 내린 2977.65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코스피는 지난해 말(2873.47)보다 3.63% 상승한 수준으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510억원, 2271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9525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다음달 3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열릴 예정이어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 3시 30분이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4일 2,874.50으로 개장한 코스피는 7월6일 3305.21로 마감해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기준 연저점은 2839.01(11월30일)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5.93포인트(0.58%) 오른 1033.9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연말(968.42)보다 6.77% 오른 수준으로 한해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7.65 (-15.64)
↑ 코스닥	1033.98 (+5.93)
↑ 금리(국고채 3년)	1.799 (+0.016)
↑ 환율(USD)	1188.80 (+2.30)

##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 효성첨단소재 '골드 메달 등급'

글로벌 섬유산업 중 상위 1%  
기후 대응 등 ESG 경영 성과

효성첨단소재(주)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1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골드 메달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골드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인 총점 72점을 획득해 평가에 참여한 모든 글로벌 회사 중 상위 3%이자, 효성첨단소재가 속한 섬유산업 내에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코바디스는 2007년 설립된 기업의 ESG 정책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대표적인 세계 조사기관이다. 전 세계 160여개국, 200여개 산업에 걸쳐 7만 5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공정거래, 공급자 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1%), 골드(상위 5%), 실버(상위25%), 브론즈(상위50%)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결과는 효성첨단소재의 국내 사업장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룩셈부르크, 루마

니아 등 글로벌 사업장들이 함께 참여한 첫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효성첨단소재의 모든 사업 부문과 글로벌 사업장에서 펼친 기후변화 대응 노력, CSR활동, 윤리경영 활동들이 빛을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타이어코드,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 원단 등 글로벌 1위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추진되도록 각 위원회가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최고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그린경영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ESG 경영 전략 수립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외 모든 사업장의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의 광주세관인'과 '이달의 으뜸 광주세관인' 시상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진 행정관, 정승환 세관장, 장순호 행정관. (광주본부세관 제공)

## 광주본부세관 '올해의 광주세관인' 장순호 관세행정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021년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광주세관 장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 약 17만개(60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공정무역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그린뉴딜 정책을 약화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1만5000여개(20억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해 국내 브랜드 보호에도 앞장

섰다는 평가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이날 12월 '이달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강석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강 행정관은 허위로 FTA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유명 명품 브랜드 수입 업체를 검거해 약 54억원의 추정,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승환 세관장은 "내년에도 관세행정의 기본업무인 공정한 대외무역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ISO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